

## 탈당탈단탈대방법

(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함 )

- \* 전자우편으로 성명  
tdsc01@epochtimes.com
- \* 동태망 인터넷으로 연결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 001-416-361-9895,  
001-702-873-1734
- \* 탈당팩스 : 001-702-248-0599,  
001-510-372-0176
- \* 인터넷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다.

제시 : 국제전화가 직접 통하지 않는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왕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IP 전화 (중국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련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시티폰[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글자를 알려드립니다

제 14 기

真言真情  
寄语乡亲  
声声呼唤  
快找真相



## 탈당탈단탈대방법

(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함 )

- \* 전자우편으로 성명  
tdsc01@epochtimes.com
- \* 동태망 인터넷으로 연결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 001-416-361-9895,  
001-702-873-1734
- \* 탈당팩스 : 001-702-248-0599,  
001-510-372-0176
- \* 인터넷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다.

제시 : 국제전화가 직접 통하지 않는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왕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IP 전화 (중국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련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시티폰[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글자를 알려드립니다

제 14 기

真言真情  
寄语乡亲  
声声呼唤  
快找真相



## 목 록

생명은 원래 이토록 아름답다.....	3
나의 아기는 한술의 분유도 먹지 않았다.....	4
어린 손자가 위험에서 벗어나다.....	6
상해에서의 기이한 일 .....	8
넝마주이 아주머니의 상쾌한 웃음소리.....	11
불행이 행운으로 변한 기적 .....	12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읽으니 장암이 철저히 났다.....	14
실명된 눈이 복명하다 .....	16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읽고 외할머니가 분복을 받다.....	18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니 뇌종양이 스스로 소실되다.....	20
대법은 참으로 신기하다.....	21
깊은 우물에 빠졌지만 평안 무사하다.....	22
어느 집에서 보살님을 모셨는가.....	24
폐암말기 환자가 새 삶을 얻다 .....	25
대기원 정중 성명.....	27
탈당 탈단 탈대 방법.....	28



## 목 록

생명은 원래 이토록 아름답다.....	3
나의 아기는 한술의 분유도 먹지 않았다.....	4
어린 손자가 위험에서 벗어나다.....	6
상해에서의 기이한 일 .....	8
넝마주이 아주머니의 상쾌한 웃음소리.....	11
불행이 행운으로 변한 기적 .....	12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읽으니 장암이 철저히 났다.....	14
실명된 눈이 복명하다 .....	16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읽고 외할머니가 분복을 받다.....	18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니 뇌종양이 스스로 소실되다.....	20
대법은 참으로 신기하다.....	21
깊은 우물에 빠졌지만 평안 무사하다.....	22
어느 집에서 보살님을 모셨는가.....	24
폐암말기 환자가 새 삶을 얻다 .....	25
대기원 정중 성명.....	27
탈당 탈단 탈대 방법.....	28



## 대기원 정중성명

광대한 중국민중들이여: 공산당의 종말이 곧 닥쳐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악한 당(마교)은 력사상 중생에 대하여 신불에 대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으므로 신은 꼭 이 악마를 청산할 것이다.

만약 어느 날 신이 인류의 누구를 지시하여 공산당에 대해 청산할 때 꼭 그런 이른바 견정한 사악한 당원들을 역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중하게 성명한다. 모든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에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탈퇴하여 사악의 기호를 지워버리라. 일단 누가 이 마교를 청산할 때 대기원에 저장한 기록은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을 탈퇴한다고 성명한 사람들을 위해 증명을 설 것이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넓은 그물과 같아서 어떤 죄인도 빠져나가질 못하고 선악은 분명하며 고생은 끝이 있고 생사는 일념에 달렸다. 과거에 력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마교에 기만당한 사람과 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 사람들이여, 조금만 늦추어도 지나가 버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

대 기 원

2005년 1월 12일

## 대기원 정중성명

광대한 중국민중들이여: 공산당의 종말이 곧 닥쳐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악한 당(마교)은 력사상 중생에 대하여 신불에 대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으므로 신은 꼭 이 악마를 청산할 것이다.

만약 어느 날 신이 인류의 누구를 지시하여 공산당에 대해 청산할 때 꼭 그런 이른바 견정한 사악한 당원들을 역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중하게 성명한다. 모든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에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탈퇴하여 사악의 기호를 지워버리라. 일단 누가 이 마교를 청산할 때 대기원에 저장한 기록은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을 탈퇴한다고 성명한 사람들을 위해 증명을 설 것이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넓은 그물과 같아서 어떤 죄인도 빠져나가질 못하고 선악은 분명하며 고생은 끝이 있고 생사는 일념에 달렸다. 과거에 력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마교에 기만당한 사람과 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 사람들이여, 조금만 늦추어도 지나가 버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

대 기 원

2005년 1월 12일



으면 대접하시오.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비통하기 그지 없었다.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시각, 이웃에 사는 파룬궁 학원이 그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듣고 나서 자신도 날마다 읽고 가족들도 도와 읽었다. 얼마간 시일이 흐른 후, 병세는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병원에 가서 검증해보니 흉막염이라고 하였다.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병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병이 도져서부터 건강이 회복되기 까지 겨우 한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체는 완전히 정상을 회복하였다.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검증하였으며 전부 사당과 그의 상관된 조직에서 탈퇴하여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였다.



으면 대접하시오.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비통하기 그지 없었다.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시각, 이웃에 사는 파룬궁 학원이 그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듣고 나서 자신도 날마다 읽고 가족들도 도와 읽었다. 얼마간 시일이 흐른 후, 병세는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병원에 가서 검증해보니 흉막염이라고 하였다.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병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병이 도져서부터 건강이 회복되기 까지 겨우 한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체는 완전히 정상을 회복하였다.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검증하였으며 전부 사당과 그의 상관된 조직에서 탈퇴하여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였다.



## 생명은 원래 이토록 아름답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태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진》이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품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선》이며,  
사람의 마음을 진감 시키는 경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이다.

《진, 선, 인》----생명이 존재하는 근본.  
생명은 원래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고,  
심령은 원래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나는 자신의 경력으로 당신에게 알려드리려 한다:  
만일 당신도 《진, 선, 인》에 동감을 표시한다면



## 생명은 원래 이토록 아름답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태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진》이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품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선》이며,  
사람의 마음을 진감 시키는 경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이다.

《진, 선, 인》----생명이 존재하는 근본.  
생명은 원래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고,  
심령은 원래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나는 자신의 경력으로 당신에게 알려드리려 한다:  
만일 당신도 《진, 선, 인》에 동감을 표시한다면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진심으로 감탄할 것이다:  
파룬따파는 좋다!

## 나의 아기는 한술의 분유도 먹지 않았다

목전, 중국대륙에서는 분유로  
야기된 어린 아이들이 중독되고 사망된  
사건이 날마다 상승되고 있다. 수많은  
나젊은 부모들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더욱 많은 가정이 비통과  
공포에 쌓여있다……나의 아이는 지금  
네살 반이다. 그녀가 태어 나서  
지금까지 한술의 분유도 먹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물을 것이다. 정말인가?  
어찌 것처럼 행운스러울 수 있는 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말해야  
할 것 같다. ----

나는 좀 늦게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에 줄곧 머리아픈 병이 있었다. 부모  
님에게서 듣건대 어렸을 때 걸린 병이  
라고 한다. 매일 약과 동반하고 때로는  
공공버스에 앉아서도 혼미해지기가 일  
수였다. 우리 집은 6 층인데 3 층까지  
올라가서는 휴식해야 했다. 어느 한번,

祝 功  
世 天  
上 下  
好 万  
人 众  
福 诚  
寿 心  
平 归  
安 善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진심으로 감탄할 것이다:  
파룬따파는 좋다!

## 나의 아기는 한술의 분유도 먹지 않았다

목전, 중국대륙에서는 분유로  
야기된 어린 아이들이 중독되고 사망된  
사건이 날마다 상승되고 있다. 수많은  
나젊은 부모들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더욱 많은 가정이 비통과  
공포에 쌓여있다……나의 아이는 지금  
네살 반이다. 그녀가 태어 나서  
지금까지 한술의 분유도 먹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물을 것이다. 정말인가?  
어찌 것처럼 행운스러울 수 있는 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말해야  
할 것 같다. ----

나는 좀 늦게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에 줄곧 머리아픈 병이 있었다. 부모  
님에게서 듣건대 어렸을 때 걸린 병이  
라고 한다. 매일 약과 동반하고 때로는  
공공버스에 앉아서도 혼미해지기가 일  
수였다. 우리 집은 6 층인데 3 층까지  
올라가서는 휴식해야 했다. 어느 한번,

祝 功  
世 天  
上 下  
好 万  
人 众  
福 诚  
寿 心  
平 归  
安 善



차는 오른쪽 돌벽에 부딪혔다가 또다시 맹렬하게  
왼쪽 보호란간에 부딪혔다. 이렇게 세 차례  
오가면서 부딪혔다.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저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뒤이어 뒤에서  
따르던 여섯 대의 차가 연속 부딪혔다. 구급차가  
소리지르며 달려오고 부상자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실려갔다.

머리를 돌려 다시 이 차를 보니 운전수가 차문  
밖으로 뿌려나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을 뿐 차에 앉  
은 사람들은 모두 평안 무사하였다. 차안의 사람들  
은 감탄해 마지않았다. 한 사람이 물었다. 《차에 앉  
은 사람 중 어느 집에서 보살님을 모셨기에 우리  
모두를 보호하였습니까?》 사후에 목씨네 막내딸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알아요.  
저의 몸에는 파룬궁 학원이 준 호신부가 있었어요.  
호신부에는 생명은 구하는 아홉 글자-- <파룬따파  
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가 있었어요.》

## 폐암말기 환자가 새 삶을 얻다

료녕 신민시 한 시골의 50 여세에 나는 농부가  
폐암말기에 걸렸다. 심양 의대 2 병원에서 검진한데  
의하면 이미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의사는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

차는 오른쪽 돌벽에 부딪혔다가 또다시 맹렬하게  
왼쪽 보호란간에 부딪혔다. 이렇게 세 차례  
오가면서 부딪혔다.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저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뒤이어 뒤에서  
따르던 여섯 대의 차가 연속 부딪혔다. 구급차가  
소리지르며 달려오고 부상자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실려갔다.

머리를 돌려 다시 이 차를 보니 운전수가 차문  
밖으로 뿌려나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을 뿐 차에 앉  
은 사람들은 모두 평안 무사하였다. 차안의 사람들  
은 감탄해 마지않았다. 한 사람이 물었다. 《차에 앉  
은 사람 중 어느 집에서 보살님을 모셨기에 우리  
모두를 보호하였습니까?》 사후에 목씨네 막내딸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알아요.  
저의 몸에는 파룬궁 학원이 준 호신부가 있었어요.  
호신부에는 생명은 구하는 아홉 글자-- <파룬따파  
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가 있었어요.》

## 폐암말기 환자가 새 삶을 얻다

료녕 신민시 한 시골의 50 여세에 나는 농부가  
폐암말기에 걸렸다. 심양 의대 2 병원에서 검진한데  
의하면 이미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의사는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



의하다고 느꼈다.

아이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여 8,9 미터 깊이의 우물에 떨어졌는데 단 한 사람밖에 설수 없는 우물 밑바닥에 온당하게 서있었다. 더욱이 우물에는 양수기와 전원이 있었다. 평시에는 한 사람의 키만큼 깊던 우물이 이 시각에는 신기하게 열어져 아이의 종아리 밖에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아이의 할머니와 가족을 보면서 말하였다. 《당신네 집은 신불이 보호하고 있군요! 이 우물은 누가 떨어져도 모두 생명이 위험한데 당신네 아이는 오히려 위험에 부딪쳤지만 평안 무사하니 말이요.》

이때 아이의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격동되어 말하였다. 《그것은 나의 손녀가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기 때문이요. 대법의 사부님께서 나의 손녀와 온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 어느 집에서 보살님을 모셨는가

2006 년 7,8 월의 어느 날, 목씨네 막내딸이 성도로부터 로주로 돌아오고 있었다. 큰 버스로 료현의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운전수는 한 흰색 승용차에 길을 양보하느라 급하게 방향판을 돌렸다.

24

의하다고 느꼈다.

아이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여 8,9 미터 깊이의 우물에 떨어졌는데 단 한 사람밖에 설수 없는 우물 밑바닥에 온당하게 서있었다. 더욱이 우물에는 양수기와 전원이 있었다. 평시에는 한 사람의 키만큼 깊던 우물이 이 시각에는 신기하게 열어져 아이의 종아리 밖에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아이의 할머니와 가족을 보면서 말하였다. 《당신네 집은 신불이 보호하고 있군요! 이 우물은 누가 떨어져도 모두 생명이 위험한데 당신네 아이는 오히려 위험에 부딪쳤지만 평안 무사하니 말이요.》

이때 아이의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격동되어 말하였다. 《그것은 나의 손녀가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기 때문이요. 대법의 사부님께서 나의 손녀와 온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 어느 집에서 보살님을 모셨는가

2006 년 7,8 월의 어느 날, 목씨네 막내딸이 성도로부터 로주로 돌아오고 있었다. 큰 버스로 료현의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운전수는 한 흰색 승용차에 길을 양보하느라 급하게 방향판을 돌렸다.

24

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또 3 층에서 쉬고 있는데 선량하게 생긴 한 할머니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꼭 좋은 점이 있을 거요.》라고 하였다. 나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씩씩하게 층계를 내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텔레비전, 신문에서는 파룬궁이 나쁘다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머리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 재빨리 약을 먹었지만 오늘의 약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듯싶었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였다. 침대에서 뒹굴던 나는 갑자기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외워보았다. 천천히 머리는 아프지 않았고 얼마 안되어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아이를 낳는 그날, 나는 갑자기 대 출혈을 하였다.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이 허둥지둥 지혈집게와 침을 가져왔을 때, 피는 자연히 지혈되었다. 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사실, 그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지만 나

5

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또 3 층에서 쉬고 있는데 선량하게 생긴 한 할머니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꼭 좋은 점이 있을 거요.》라고 하였다. 나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씩씩하게 층계를 내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텔레비전, 신문에서는 파룬궁이 나쁘다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머리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 재빨리 약을 먹었지만 오늘의 약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듯싶었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였다. 침대에서 뒹굴던 나는 갑자기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외워보았다. 천천히 머리는 아프지 않았고 얼마 안되어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아이를 낳는 그날, 나는 갑자기 대 출혈을 하였다.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이 허둥지둥 지혈집게와 침을 가져왔을 때, 피는 자연히 지혈되었다. 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사실, 그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지만 나

5

의 얼굴에는 시종 붉은 빛이 감돌고 줄곧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내가 그녀들이 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산모라고 하였다. 더욱 행운스러운 것은 며칠 후, 노인들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의 젖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지금 네살 반인데 줄곧 아주 건강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 듣고 별로 앓지도 않는다. 지금 이미 유치원 대반에 다니고 있다. 자신의 귀염둥이를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분유사건을 보면서 행운스럽게 느끼면서 정말이지 소유의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세계는 어찌된 일인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단 말인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단 말인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파룬궁의 진상을 모르는 것이며 우리가 아직도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모르는 것이다. 진심으로 매 한 분의 부모님과 매 하나의 아이들이 이 아홉 글자를 명기하기를 기원하며 매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를 축복한다.

## 어린 손자가 위험에서 벗어나다

주구시의 교외에는 류영(가명)이라고 부르는 농촌 부녀가 살고 있는데 50 여세에 난다. 류영은

의 얼굴에는 시종 붉은 빛이 감돌고 줄곧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내가 그녀들이 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산모라고 하였다. 더욱 행운스러운 것은 며칠 후, 노인들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의 젖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지금 네살 반인데 줄곧 아주 건강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 듣고 별로 앓지도 않는다. 지금 이미 유치원 대반에 다니고 있다. 자신의 귀염둥이를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분유사건을 보면서 행운스럽게 느끼면서 정말이지 소유의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세계는 어찌된 일인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단 말인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단 말인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파룬궁의 진상을 모르는 것이며 우리가 아직도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모르는 것이다. 진심으로 매 한 분의 부모님과 매 하나의 아이들이 이 아홉 글자를 명기하기를 기원하며 매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를 축복한다.

## 어린 손자가 위험에서 벗어나다

주구시의 교외에는 류영(가명)이라고 부르는 농촌 부녀가 살고 있는데 50 여세에 난다. 류영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찾아가 놀았다. 놀음을 놀다가 아이들은 마을 서쪽 끝의 한 채소밭으로 가서 새로 판 우물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원래 천진하고 호기심이 많은지라 우물 아구리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사람이 비치는 우물물이 보이고 우물밑바닥에 장치해 놓은 발을 관개하는데 쓰는 양수기, 그리고 전기설비도 보였다.

갑자기 《퐁덩》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우물에 떨어졌다. 곁에 있던 아이들은 그녀가 우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울면서 사람을 구하라고 소리쳤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사람들은 바줄을 찾아 몸에 동이고 한 사람이 우물아래로 내려갔다. 아이는 온당하게 우물바닥에 선채 울면서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가 우물에서 나온 후, 옷이 젖은 외에 온몸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너 무섭지 않던? 너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있게 되었니?》하고 물었다. 아이는 천진하게 대답하였다. 《처음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받들어주어 가볍게 몸을 돌려 그곳에 온당하게 서 있도록 해주었어요.》 나중에 자신이 우물 밑바닥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여 불가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찾아가 놀았다. 놀음을 놀다가 아이들은 마을 서쪽 끝의 한 채소밭으로 가서 새로 판 우물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원래 천진하고 호기심이 많은지라 우물 아구리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사람이 비치는 우물물이 보이고 우물밑바닥에 장치해 놓은 발을 관개하는데 쓰는 양수기, 그리고 전기설비도 보였다.

갑자기 《퐁덩》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우물에 떨어졌다. 곁에 있던 아이들은 그녀가 우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울면서 사람을 구하라고 소리쳤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사람들은 바줄을 찾아 몸에 동이고 한 사람이 우물아래로 내려갔다. 아이는 온당하게 우물바닥에 선채 울면서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가 우물에서 나온 후, 옷이 젖은 외에 온몸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너 무섭지 않던? 너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있게 되었니?》하고 물었다. 아이는 천진하게 대답하였다. 《처음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받들어주어 가볍게 몸을 돌려 그곳에 온당하게 서 있도록 해주었어요.》 나중에 자신이 우물 밑바닥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여 불가사

고 물었다. 그는 기억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러면 날마다 성심으로 염하거라 보증코 별일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는 《꼭 염할게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들은 평시에도 파룬따파를 믿고 있었고 탈대도 하였었다.

이튿날,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기뻐하며 말하였다. 《귀가 다 나왔어요. 고름도 흐르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대법은 참으로 신기해요.》



## 깊은 우물에 빠졌지만 평안무사하다

료녕 호로도시 서부산구에는 한 일가족이 살고 있다. 집에는 다섯 살 난 여자애가 있는데 천진하고 장난꾸러기였다. 아이의 할머니는 경상적으로 아이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라고 가르치며 파룬궁 학원이 그녀에게 준 호신부를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일찍이 사당의 일체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좋고 신기하여 여러 차례 이 가정에서 그 신기함을 나타내었다. 아래는 이 가정에서 발생한 신기한 이야기이다.

금년 6월의 어느 날, 아침밥을 먹은 후, 아이는

22

고 물었다. 그는 기억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러면 날마다 성심으로 염하거라 보증코 별일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는 《꼭 염할게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들은 평시에도 파룬따파를 믿고 있었고 탈대도 하였었다.

이튿날,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기뻐하며 말하였다. 《귀가 다 나왔어요. 고름도 흐르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대법은 참으로 신기해요.》



## 깊은 우물에 빠졌지만 평안무사하다

료녕 호로도시 서부산구에는 한 일가족이 살고 있다. 집에는 다섯 살 난 여자애가 있는데 천진하고 장난꾸러기였다. 아이의 할머니는 경상적으로 아이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라고 가르치며 파룬궁 학원이 그녀에게 준 호신부를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일찍이 사당의 일체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좋고 신기하여 여러 차례 이 가정에서 그 신기함을 나타내었다. 아래는 이 가정에서 발생한 신기한 이야기이다.

금년 6월의 어느 날, 아침밥을 먹은 후, 아이는

22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사람됨됨이가 너무나도 성실하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생각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다 막혀버렸다고 한다. 그러면 류영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선 뭐해요. 저의 마음은 도로 되어 실속이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별 동지로 만들어져 몽땅 공공이뿐이에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하는 거짓말은 왜 다 믿는 거요?》 하자 류영은 《텔레비전에서 파룬궁은 x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믿었나요? 우리 마을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인데 어느 사람이 x교인가요?》 하고 되물었다.

하루는 류영이 파룬궁 학원 옥령을 만났다. 옥령은 그녀에게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는 기이한 효과와 심성을 제고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 진상을 이야기 하였다. 나중에 또 위험에 부딪치면 꼭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재삼 부탁하면서 분명히 위험한 일은 물러가고 난에 부딪쳐도 상화롭게 변할 것이라고 하였다.

몇 달이 지나 봄과 여름이 바뀌는 계절이 되었다. 류영은 밥을 지어놓고 한 손에 한 사발 가득 죽을 담아 들고 다른 한 손에 만두



7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사람됨됨이가 너무나도 성실하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생각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다 막혀버렸다고 한다. 그러면 류영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선 뭐해요. 저의 마음은 도로 되어 실속이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별 동지로 만들어져 몽땅 공공이뿐이에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하는 거짓말은 왜 다 믿는 거요?》 하자 류영은 《텔레비전에서 파룬궁은 x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믿었나요? 우리 마을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인데 어느 사람이 x교인가요?》 하고 되물었다.

하루는 류영이 파룬궁 학원 옥령을 만났다. 옥령은 그녀에게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는 기이한 효과와 심성을 제고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 진상을 이야기 하였다. 나중에 또 위험에 부딪치면 꼭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재삼 부탁하면서 분명히 위험한 일은 물러가고 난에 부딪쳐도 상화롭게 변할 것이라고 하였다.

몇 달이 지나 봄과 여름이 바뀌는 계절이 되었다. 류영은 밥을 지어놓고 한 손에 한 사발 가득 죽을 담아 들고 다른 한 손에 만두



7

그릇을 든채 부엌을 나섰다. 이때 한살 남짓한 손자 소호가 어디에선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부둥켜 안았다. 류영은 흠칫 놀라며 발을 비틀거렸다. 비록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에 들었던 한 사발의 죽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몽땅 손자의 머리에도 쏟았다. 소호는 오랜 시간 후에야 울음을 터뜨렸다. 류영은 손자를 안고 머리우의 죽을 닦아주면서 말하였다. 《파룬따파여, 우리 소호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조금 지나 소호는 울음을 그쳤다. 다시 머리와 몸을 살펴보니 붉어진 곳도 찾을 수 없었다. 류영은 감동되어 울면서 손자에게 말하였다. 《소호야, 파룬따파가 너를 구해주었다. 너도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외쳐라.》 소호도 같이 외쳤다. 얼마 안지나 소호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달아 다니며 놀았다.

## 상해에서의 기이한 일

2008년 이른 봄의 어느 날, 상해 어느 한 병원의 병실에서 위에 구멍이 난 한 남 청년이 고통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뒹굴면서 《엄마야! 엄마야!》 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를 보살피던 두 친구는 마음이 급하여

번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였다. 의사는 수술 준비를 하다가 뇌종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다만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출혈점이 있을 뿐이었다. 의사도 원인을 몰라 수술을 취소하였다. 다만 왕녀사 본인만은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왕녀사는 출원한 후, 신체가 줄곧 아주 좋았다. 후에 그녀는 이 비밀을 가족과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그 동창생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말하였다. 《파룬따파는 참 좋아요. 대법은 참 신기해요. 파룬따파가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어요. 저는 지금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고 있어요. 저도 파룬공을 배우고 싶어요.》

## 대법은 참으로 신기하다

며칠 전에 외지에서 삭일을 하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그의 귀가 어찌된 영문인지 날마다 두 번씩 고름이 흐른다고 하였다. 매번 흐르는 양이 아주 많고 귀안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보였더니 많은 약을 주더라는 것이었다. 먹는 것도 있고 씻는 것도 있었는데 며칠 동안 약을 썼지만 조금도 호전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아홉 글자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法轮大法好, 真、善、忍好”)를 아직 기억하고 있니?》하

그릇을 든채 부엌을 나섰다. 이때 한살 남짓한 손자 소호가 어디에선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부둥켜 안았다. 류영은 흠칫 놀라며 발을 비틀거렸다. 비록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에 들었던 한 사발의 죽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몽땅 손자의 머리에도 쏟았다. 소호는 오랜 시간 후에야 울음을 터뜨렸다. 류영은 손자를 안고 머리우의 죽을 닦아주면서 말하였다. 《파룬따파여, 우리 소호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조금 지나 소호는 울음을 그쳤다. 다시 머리와 몸을 살펴보니 붉어진 곳도 찾을 수 없었다. 류영은 감동되어 울면서 손자에게 말하였다. 《소호야, 파룬따파가 너를 구해주었다. 너도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외쳐라.》 소호도 같이 외쳤다. 얼마 안지나 소호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달아 다니며 놀았다.

## 상해에서의 기이한 일

2008년 이른 봄의 어느 날, 상해 어느 한 병원의 병실에서 위에 구멍이 난 한 남 청년이 고통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뒹굴면서 《엄마야! 엄마야!》 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를 보살피던 두 친구는 마음이 급하여

번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였다. 의사는 수술 준비를 하다가 뇌종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다만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출혈점이 있을 뿐이었다. 의사도 원인을 몰라 수술을 취소하였다. 다만 왕녀사 본인만은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왕녀사는 출원한 후, 신체가 줄곧 아주 좋았다. 후에 그녀는 이 비밀을 가족과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그 동창생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말하였다. 《파룬따파는 참 좋아요. 대법은 참 신기해요. 파룬따파가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어요. 저는 지금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고 있어요. 저도 파룬공을 배우고 싶어요.》

## 대법은 참으로 신기하다

며칠 전에 외지에서 삭일을 하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그의 귀가 어찌된 영문인지 날마다 두 번씩 고름이 흐른다고 하였다. 매번 흐르는 양이 아주 많고 귀안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보였더니 많은 약을 주더라는 것이었다. 먹는 것도 있고 씻는 것도 있었는데 며칠 동안 약을 썼지만 조금도 호전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아홉 글자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法轮大法好, 真、善、忍好”)를 아직 기억하고 있니?》하



로 땅에 내려왔고 보름 후에는 일부 가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온 가족은 이로 인해 특별히 기뻐하였다. 외할머니는 말하였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다. 대법의 사부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셨다. 지금 외할머니는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는다.

이 한 단락의 생활 에피소드는 파룬따파의 이야기 중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글로 써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파룬따파는 좋다》를 믿으면 꼭 분복을 받는다.

##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니 뇌종양이 스스로 소실되었다

동북 모시의 51 세에 나는 왕녀사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한 결과 그녀의 뇌에는 출혈점이 있고 또 닭알만큼한 종류가 있어 반드시 머리를 가르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술대에 누운 왕녀사는 갑자기 동창모임에서 한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동창생이 그녀에게 알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위험한 시각에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면 재난을 면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녀사는 한번 또 한



로 땅에 내려왔고 보름 후에는 일부 가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온 가족은 이로 인해 특별히 기뻐하였다. 외할머니는 말하였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다. 대법의 사부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셨다. 지금 외할머니는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는다.

이 한 단락의 생활 에피소드는 파룬따파의 이야기 중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글로 써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파룬따파는 좋다》를 믿으면 꼭 분복을 받는다.

##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니 뇌종양이 스스로 소실되었다

동북 모시의 51 세에 나는 왕녀사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한 결과 그녀의 뇌에는 출혈점이 있고 또 닭알만큼한 종류가 있어 반드시 머리를 가르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술대에 누운 왕녀사는 갑자기 동창모임에서 한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동창생이 그녀에게 알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위험한 시각에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면 재난을 면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녀사는 한번 또 한



속이 불붙듯 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병에 걸린 젊은이는 장전(가명)이라고 부르는데 고향은 하남의 시골이다. 설을 쇠 후, 장전과 한 마을에 있는 두 젊은이는 함께 상해로 와서 삭일을 하였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난이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으랴. 어느 하루 점심식사를 마친 후, 복부가 갑자기 맹렬히 아프기 시작하여 두 친구는 급급히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한바탕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환자가 급성 위천공(위에 구멍이 나는 병)에 걸려 수시로 생명이 위험함으로 빨리 1만원의 담보금을 준비하여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의 호주머니의 돈을 몽땅 털어봤자 겨우 천원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억지로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수술 담보금은 여전히 장전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보내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병원에서 장전은 고통을 참기 힘들어 하였다. 두 친구는 의사에서 래일이면 담보금을 꼭 보내줄 것이니 먼저 수술을 해 달라고 간곡히 사정하였다. 그러나 번마다 주치의사의 쌀쌀한 거절을 받았다.

돈이 없기에 수술은 받을 수 없고 장전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똑똑하게 의식하였다. 위에서 오는 고통은 점점 더 극심해졌으며 그의 슬픔과 절망도 점차 깊어갔다. 바로 이 절망과 슬픔

속이 불붙듯 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병에 걸린 젊은이는 장전(가명)이라고 부르는데 고향은 하남의 시골이다. 설을 쇠 후, 장전과 한 마을에 있는 두 젊은이는 함께 상해로 와서 삭일을 하였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난이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으랴. 어느 하루 점심식사를 마친 후, 복부가 갑자기 맹렬히 아프기 시작하여 두 친구는 급급히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한바탕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환자가 급성 위천공(위에 구멍이 나는 병)에 걸려 수시로 생명이 위험함으로 빨리 1만원의 담보금을 준비하여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의 호주머니의 돈을 몽땅 털어봤자 겨우 천원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억지로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수술 담보금은 여전히 장전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보내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병원에서 장전은 고통을 참기 힘들어 하였다. 두 친구는 의사에서 래일이면 담보금을 꼭 보내줄 것이니 먼저 수술을 해 달라고 간곡히 사정하였다. 그러나 번마다 주치의사의 쌀쌀한 거절을 받았다.

돈이 없기에 수술은 받을 수 없고 장전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똑똑하게 의식하였다. 위에서 오는 고통은 점점 더 극심해졌으며 그의 슬픔과 절망도 점차 깊어갔다. 바로 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장전은 문득 상해로 오기 전에 현지의 한 파룬궁 학원이 그들 매 사람에게 예쁜 카드를 주면서 알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속담에 이르기를 <집에서는 천 가지가 모두 좋다가도 밖에 나르면 일시가 곤란하다> 고 하는데 만일 무슨 시끄러운 일에 부딪치면 꼭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를 읽으세요. 대법이 당신들을 도와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한 장전은 생명의 서광을 본 것 같았다. 그는 큰 소리로《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외쳤다. 이렇게 한 번 또 한번 외치고 있노라니 배가 아프지 않았다. 그러다가 젊은이는 점차 잠이 들었다.

잠이 들자 단번에 네 시간 남짓이 잤다. 하남으로부터 상해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장전의 아버지는 마음이 불 같았다.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지라 날개라도 돌쳐 단번에 병원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달려가보니 아들의 병은 이미 다 나았고 세 젊은이는 병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후 시 말을 듣고 나서 장전의 아버지



속에서 장전은 문득 상해로 오기 전에 현지의 한 파룬궁 학원이 그들 매 사람에게 예쁜 카드를 주면서 알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속담에 이르기를 <집에서는 천 가지가 모두 좋다가도 밖에 나르면 일시가 곤란하다> 고 하는데 만일 무슨 시끄러운 일에 부딪치면 꼭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를 읽으세요. 대법이 당신들을 도와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한 장전은 생명의 서광을 본 것 같았다. 그는 큰 소리로《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외쳤다. 이렇게 한 번 또 한번 외치고 있노라니 배가 아프지 않았다. 그러다가 젊은이는 점차 잠이 들었다.

잠이 들자 단번에 네 시간 남짓이 잤다. 하남으로부터 상해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장전의 아버지는 마음이 불 같았다.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지라 날개라도 돌쳐 단번에 병원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달려가보니 아들의 병은 이미 다 나았고 세 젊은이는 병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후 시 말을 듣고 나서 장전의 아버지



년 정월에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나의 오빠 집에 머물렀다. 그날, 그녀는 바닥에 내려오다가 조심하지 않아 땅에 넘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형님과 아이들이 줄곧 소리쳐 불러 끝내 혼미상태에서 깨어났다. 나중에 구호차를 불러(허리를 움직일 수 없었기에) 병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가벼운 골절과 큰 힘줄이 상했다고 하였다. 당시 담가에 실어서 외할머니 집으로 모셔갔다. 저녁에는 고통이 더 심했다. 온 집 식구는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오빠 몇은 룬번으로 간호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내가 잠시 출근하지 않으니 내가 돌보겠다고 하였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 파룬궁의 호신부를 찾아냈다. 이튿날 외할머니를 찾아가서 《외할머니, 병이 빨리 낫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성심으로 경건하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허리 아픈 병이 나을 거예요.》 외할머니는 듣고 나서 몸에서 다른 사람이 준 물건을 떼어버리고는 대뜸 파룬궁의 호신부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입으로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외할머니의 병은 말마다 호전을 보였다. 처음에는 줄곧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아야 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스스

년 정월에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나의 오빠 집에 머물렀다. 그날, 그녀는 바닥에 내려오다가 조심하지 않아 땅에 넘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형님과 아이들이 줄곧 소리쳐 불러 끝내 혼미상태에서 깨어났다. 나중에 구호차를 불러(허리를 움직일 수 없었기에) 병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가벼운 골절과 큰 힘줄이 상했다고 하였다. 당시 담가에 실어서 외할머니 집으로 모셔갔다. 저녁에는 고통이 더 심했다. 온 집 식구는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오빠 몇은 룬번으로 간호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내가 잠시 출근하지 않으니 내가 돌보겠다고 하였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 파룬궁의 호신부를 찾아냈다. 이튿날 외할머니를 찾아가서 《외할머니, 병이 빨리 낫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성심으로 경건하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허리 아픈 병이 나을 거예요.》 외할머니는 듣고 나서 몸에서 다른 사람이 준 물건을 떼어버리고는 대뜸 파룬궁의 호신부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입으로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외할머니의 병은 말마다 호전을 보였다. 처음에는 줄곧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아야 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스스

치는 물건이요. 빨리 던져버리오.》 그는 감이 그러지 못하겠으니 나더러 도와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집에 또 이와 유사한 물건이 없는 가고 물었다. 나는 방안에서 또 작은 모xx의 두상을 찾아내어 같이 버렸다.

이때 밥이 다 지어졌다. 우리 일가족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큰 매부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 아주 기뻐하였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했다. 《자네는 자네 아주머니한테서 대법을 배우게나.》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내가 물었다. 《내가 똑똑히 보이오?》 그는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꼭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라고 하자 그는 알았다고 하였다.

큰 매부의 눈이 회복된 정경을 보면서 85세의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참 잘 됐다. 돈 한 톨 팔지 않고 눈이 났다니 참 신기하다.》 이 일을 통하여 시어머니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파룬따파가 큰 사위의 눈을 구했다고 말한다.

##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고 외할머니가 분복을 받다

나의 외할머니는 금년에 75 세이다. 작년 겨울부터 허리가 아파 가무 일을 하지 못하였다. 금

치는 물건이요. 빨리 던져버리오.》 그는 감이 그러지 못하겠으니 나더러 도와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집에 또 이와 유사한 물건이 없는 가고 물었다. 나는 방안에서 또 작은 모xx의 두상을 찾아내어 같이 버렸다.

이때 밥이 다 지어졌다. 우리 일가족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큰 매부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 아주 기뻐하였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했다. 《자네는 자네 아주머니한테서 대법을 배우게나.》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내가 물었다. 《내가 똑똑히 보이오?》 그는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꼭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라고 하자 그는 알았다고 하였다.

큰 매부의 눈이 회복된 정경을 보면서 85세의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참 잘 됐다. 돈 한 톨 팔지 않고 눈이 났다니 참 신기하다.》 이 일을 통하여 시어머니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파룬따파가 큰 사위의 눈을 구했다고 말한다.

##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고 외할머니가 분복을 받다

나의 외할머니는 금년에 75 세이다. 작년 겨울부터 허리가 아파 가무 일을 하지 못하였다. 금

의 격동된 심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니 의사도 감탄하였다. 《기적입니다. 전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남자는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 순박한 하남 시골농부는 감동의 눈물을 떨구었다!

## 넝마주이 아주머니의 상쾌한 웃음소리

비 내리는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50 여세에 나는 가련하고 의지 가지 없는 넝마주이 아주머니를 만났다. 길을 걸을 때면 반발자국씩 힘들게 앞으로 움직였으며 신체 또한 엄중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수시로 넘어질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정황을 물어보았다. 그녀는 허리다리가 아픈지 이미 여러 해가 됐으며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뜨고 아들딸은 고정된 직업이 없어 멀리 객지로 가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은 가정주부로서 일체 생활 래원이 없으므로 아픈 몸을 끌고 다니며 넝마를 주어 입에 풀칠이나 하는데 병마의 시달림과 생활의 간고함은 그녀더러 거의 살아갈 용기를 잃게 한다고 하였다.

나는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나서 그녀에게 파룬공의 진상을 알려주고 삼퇴(탈당, 탈단, 탈대)의 일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글을 읽은 적이 없기에 아

의 격동된 심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니 의사도 감탄하였다. 《기적입니다. 전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남자는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 순박한 하남 시골농부는 감동의 눈물을 떨구었다!

## 넝마주이 아주머니의 상쾌한 웃음소리

비 내리는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50 여세에 나는 가련하고 의지 가지 없는 넝마주이 아주머니를 만났다. 길을 걸을 때면 반발자국씩 힘들게 앞으로 움직였으며 신체 또한 엄중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수시로 넘어질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정황을 물어보았다. 그녀는 허리다리가 아픈지 이미 여러 해가 됐으며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뜨고 아들딸은 고정된 직업이 없어 멀리 객지로 가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은 가정주부로서 일체 생활 래원이 없으므로 아픈 몸을 끌고 다니며 넝마를 주어 입에 풀칠이나 하는데 병마의 시달림과 생활의 간고함은 그녀더러 거의 살아갈 용기를 잃게 한다고 하였다.

나는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나서 그녀에게 파룬공의 진상을 알려주고 삼퇴(탈당, 탈단, 탈대)의 일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글을 읽은 적이 없기에 아



무것도 모른다고 하였다. 나는 그러면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분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당장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였다.

한 주일 후, 나는 또 그녀를 만났다. 나더러 놀랍고도 기쁘게 한 것은 그녀의 신체가 더 이상 왼쪽으로 기울지 않고 얼굴에는 홍조가 비껴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고 나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아픈 것이 많이 나았고 허리도 펴졌다고 하였다.

한달 후, 우리는 또 만났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였다. 걸을 때면 큰 걸음으로 걷고 정신 상태도 아주 좋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병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고 나서 병이 나았다오.》 그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룬따파가 그녀의 신체를 건강하게 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상쾌하게 웃으면서 《파룬따파는 좋다!》를 되풀이 하였다.



## 불행이 행운으로 변한 기적

나는 유방시의 한 화물차 기사이다. 장모님의

12

무것도 모른다고 하였다. 나는 그러면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분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당장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였다.

한 주일 후, 나는 또 그녀를 만났다. 나더러 놀랍고도 기쁘게 한 것은 그녀의 신체가 더 이상 왼쪽으로 기울지 않고 얼굴에는 홍조가 비껴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고 나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아픈 것이 많이 나았고 허리도 펴졌다고 하였다.

한달 후, 우리는 또 만났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였다. 걸을 때면 큰 걸음으로 걷고 정신 상태도 아주 좋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병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고 나서 병이 나았다오.》 그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룬따파가 그녀의 신체를 건강하게 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상쾌하게 웃으면서 《파룬따파는 좋다!》를 되풀이 하였다.



## 불행이 행운으로 변한 기적

나는 유방시의 한 화물차 기사이다. 장모님의

12

을 팔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옆 사람더러 잠깐 보라고 하고는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그가 이 모양인지라 재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요. 병원에서 아래위층으로 몇 시간 달아 다녔는데 나중에 의사가 말하기를 무슨 병인지 검진해낼 수 없다고 하였어요.》 큰 매부는 이어서 말하였다.

《반나절이나 보고 나서 나에게 병이 없다니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지금의 병원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큰 시누이도 말하였다. 《이 눈을 보기만 해도 정상이 아닌데 어찌 병이 없단 말이에요. 후에 저는 또 그이를 모시고 성 병원, 시 병원에 갔는데 모두 병이 없다고 하였어요.》 이때 큰 매부는 격분하여 그들을 모두 백치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시 어째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지 않았어요?》 그는 생각 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내가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읽으라고 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또 그에게 파룬공의 신기함과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 하였다. 가족에서도 같이 들었다. 호신부를 그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나는 침대머리에 놓여있는 모xx의 상을 보았다. 무엇 때문에 버리지 않는 가고 묻자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무엇을 기념하려오? 그것은 사람을 해

17

을 팔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옆 사람더러 잠깐 보라고 하고는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그가 이 모양인지라 재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요. 병원에서 아래위층으로 몇 시간 달아 다녔는데 나중에 의사가 말하기를 무슨 병인지 검진해낼 수 없다고 하였어요.》 큰 매부는 이어서 말하였다.

《반나절이나 보고 나서 나에게 병이 없다니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지금의 병원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큰 시누이도 말하였다. 《이 눈을 보기만 해도 정상이 아닌데 어찌 병이 없단 말이에요. 후에 저는 또 그이를 모시고 성 병원, 시 병원에 갔는데 모두 병이 없다고 하였어요.》 이때 큰 매부는 격분하여 그들을 모두 백치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시 어째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지 않았어요?》 그는 생각 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내가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읽으라고 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또 그에게 파룬공의 신기함과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 하였다. 가족에서도 같이 들었다. 호신부를 그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나는 침대머리에 놓여있는 모xx의 상을 보았다. 무엇 때문에 버리지 않는 가고 묻자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무엇을 기념하려오? 그것은 사람을 해

17

해준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나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를 믿고 대법 중에서 혜택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실명된 눈이 복명하다

2006년 4월의 어느 날, 우리 집의 작은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큰 아저씨가 병에 걸렸는데 사흘 동안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하였다. 무슨 원인인가고 묻자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호신부와 파룬궁의 진상 자료를 지니고 외 손군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시누이의 집으로 가니 시어머니와 둘째 시누이, 셋째 시누이가 모두 와 있었다. 나는 큰 시누이 남편에게 물었다. 《웬일이세요?》 그는 말하였다. 《이틀 전에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좀 지나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비볐지만 그래도 잘 보이지 않더니 얼마 지나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더러 빨리 돌아오라고 하였어요.》 이때 큰 시누이가 말하였다. 《그이가 나를 부를 때 그 소리는 정말 사람을 놀래 왔어요. 저는 층집아래에서 물건



영향하에 나는 점차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얼마간의 인식이 있게 되었으며 마음속으로부터 공경하게 되었다. 나는 매번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며 차에다는 호신부를 걸어놓았다.

2008년 7월 12일 오후 두 시 반 좌우,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시각이다. 그날 오후, 날도 그리 덥지 않았다. 날이 어둡기 전에 돌아올 타산으로 나는 화물을 실은 후, 급급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안구시 서환로에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앞으로 나갔다. 방향도 기본상 통제를 잃어버렸다. 나는 대뜸 앞 바퀴가 터졌음을 짐작했다. 나는 한편으로 핸들을 껏 끌어안고 천천히 급정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사부님, 빨리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외쳤다.

바로 이 시각 기적이 발생하였다. 차는 천천히 오른쪽에 접근하여 멈춰 섰다. 나는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천만다행이었다. 다행히 대법의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셨기에 한차례 차가 훼손되고 사람이 죽는 사고를 피명한 것이다. 이때 나의 첫 번째 일념은 바로 사부님의 법신상 앞에 서서 생명을 구해준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장모님께 사실

해준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나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를 믿고 대법 중에서 혜택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실명된 눈이 복명하다

2006년 4월의 어느 날, 우리 집의 작은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큰 아저씨가 병에 걸렸는데 사흘 동안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하였다. 무슨 원인인가고 묻자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호신부와 파룬궁의 진상 자료를 지니고 외 손군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시누이의 집으로 가니 시어머니와 둘째 시누이, 셋째 시누이가 모두 와 있었다. 나는 큰 시누이 남편에게 물었다. 《웬일이세요?》 그는 말하였다. 《이틀 전에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좀 지나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비볐지만 그래도 잘 보이지 않더니 얼마 지나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더러 빨리 돌아오라고 하였어요.》 이때 큰 시누이가 말하였다. 《그이가 나를 부를 때 그 소리는 정말 사람을 놀래 왔어요. 저는 층집아래에서 물건



영향하에 나는 점차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얼마간의 인식이 있게 되었으며 마음속으로부터 공경하게 되었다. 나는 매번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며 차에다는 호신부를 걸어놓았다.

2008년 7월 12일 오후 두 시 반 좌우,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시각이다. 그날 오후, 날도 그리 덥지 않았다. 날이 어둡기 전에 돌아올 타산으로 나는 화물을 실은 후, 급급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안구시 서환로에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앞으로 나갔다. 방향도 기본상 통제를 잃어버렸다. 나는 대뜸 앞 바퀴가 터졌음을 짐작했다. 나는 한편으로 핸들을 껏 끌어안고 천천히 급정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사부님, 빨리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외쳤다.

바로 이 시각 기적이 발생하였다. 차는 천천히 오른쪽에 접근하여 멈춰 섰다. 나는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천만다행이었다. 다행히 대법의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셨기에 한차례 차가 훼손되고 사람이 죽는 사고를 피명한 것이다. 이때 나의 첫 번째 일념은 바로 사부님의 법신상 앞에 서서 생명을 구해준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장모님께 사실

의 경과를 말씀 드렸더니 장모님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셨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사부님의 법신상 앞에 서서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이 한 단락 친히 겪은 경력을 통하여 나는 더욱더 대법의 신기함에 대해 료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동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차를 모는 일은 아주 위험한 사업이니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기억하면 위험한 일도 상화롭게 변하고 난에 부딪쳐도 벗어 날수 있다.



##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는 읽으니 장암이 철저히 났다

2004년 초, 청도 효남시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부터는 경상적으로 아팠다. 아프기 시작하면 온 몸에 땀이 흠뻑 흘렀으며 땀을 닦은 수건은 짜면 물이 흘러나왔다. 초기에는 십여일 동안 링거를 맞으면 이십여 일은 괜찮군 하였다. 후에는 반복적으로 발작하였고 그 간격도 점점 짧아졌으며 점점 더 엄중해졌다. 8월 19일, 우리 형제자매 몇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개발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

는 만져보더니 닭알만큼한 물체가 있다고 하였다. 검사를 거쳐 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진일보 확인하기 위하여 또 효남인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불치의 병에 걸린 사실은 우리에게 대한 정신적 압력이 너무나 커 거의 붕괴될 지경이었다. 바로 이 시각에 나는 한 파룬궁을 수련하는 아지미가 나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분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아버지더러 성심으로 진심으로 읽으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짬만 있으면 읽었으며 파룬따파의 진상자료도 보았다.

이틀 후, 아버지가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종양이 사라지고 장암도 나았다. 의사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돌아가시오. 병이 나아습니다.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약도 짓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지금까지 이미 2년 남짓이 지났는데 신체는 줄곧 아주 건강하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다. 우리는 충심으로 리선생님이 생명을 구

의 경과를 말씀 드렸더니 장모님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셨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사부님의 법신상 앞에 서서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이 한 단락 친히 겪은 경력을 통하여 나는 더욱더 대법의 신기함에 대해 료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동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차를 모는 일은 아주 위험한 사업이니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기억하면 위험한 일도 상화롭게 변하고 난에 부딪쳐도 벗어 날수 있다.



##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는 읽으니 장암이 철저히 났다

2004년 초, 청도 효남시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부터는 경상적으로 아팠다. 아프기 시작하면 온 몸에 땀이 흠뻑 흘렀으며 땀을 닦은 수건은 짜면 물이 흘러나왔다. 초기에는 십여일 동안 링거를 맞으면 이십여 일은 괜찮군 하였다. 후에는 반복적으로 발작하였고 그 간격도 점점 짧아졌으며 점점 더 엄중해졌다. 8월 19일, 우리 형제자매 몇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개발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

는 만져보더니 닭알만큼한 물체가 있다고 하였다. 검사를 거쳐 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진일보 확인하기 위하여 또 효남인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불치의 병에 걸린 사실은 우리에게 대한 정신적 압력이 너무나 커 거의 붕괴될 지경이었다. 바로 이 시각에 나는 한 파룬궁을 수련하는 아지미가 나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분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아버지더러 성심으로 진심으로 읽으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짬만 있으면 읽었으며 파룬따파의 진상자료도 보았다.

이틀 후, 아버지가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종양이 사라지고 장암도 나았다. 의사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돌아가시오. 병이 나아습니다.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약도 짓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지금까지 이미 2년 남짓이 지났는데 신체는 줄곧 아주 건강하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다. 우리는 충심으로 리선생님이 생명을 구